

#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 Digital Mental Health Policy in Australia

어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Yugyeong E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높은 접근성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목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계획에 디지털 서비스를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였으며, 안전 및 품질 표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에는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 또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의 중요성도 커짐에 따라 신체건강에 대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WHO, 2019). 정신건강 위험 수준과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은 도리어 낮아지고 있다(WHO, 2020).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자 2020년 3월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원격의료(telehealth)를 같은 해 9월까지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이를 2021년 3월까지 추가 연

장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0a, 2020b). 코로나19 이전에는 특정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만이 메디케어 급여 항목으로 인정되었으나, 대면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 상황임을 고려하여 급여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Marshall, Dunstan, & Bartik, 2020). 급여 인정 후 상당한 규모의 이용자들이 원격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2020년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약 4주간 전체 메디케어 급여 대상인 정신건강 서비스 중 3분의 1 이상이 원격으로 제공되었다(AIHW, 2020). 그러나 급여로 인정되는 원격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자들은 다양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Marshall et al., 2020).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Torous et al., 2020).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미 예전부터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환경 구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와 호주 정부가 서비스 육성 정책을 추진해 온 이유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상대적으로 경증인 대상자들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자원을 종종 대상자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거부감을 낮추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디지털 서비스의 장점으로 꼽힌다(Marshall et al., 2020). 이러한 장점들에 주목하여 호주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개혁의 일환으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실제 사용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호주 정부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의 발전 과정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정신건강 정책의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특징

디지털 건강 서비스, 즉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란 보건의료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디지털 헬스 중 디지털 신약(Digital Medicine)은 복약 지도에,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는 질환 치료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의미한다(박지훈, 송승재, 배민철, 2020).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헬스 중 정신건강 영역에 속한 서비스 전반을 가리킨다.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치료와 같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일컫는다(ACSQHC, 2020). 전화, 화상회의, 문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인 정보 제공, 디지털 상담, 치료, 동료 간 지원(peer-to-peer support) 등이 이에 포함된다(ACSQHC, 2020).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대면 정신건강 서비스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이 크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시간과 장소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원격의료를 통해 대면으로 만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불충분한 상태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마다 혹은 연구마다 효과 유무가 다르게 나타난다(Anthes, 2016; Torous et al., 2020). 그러나 이미 10년 전에 우울, 불안과 같은 경증 질환에 컴퓨터 또는 온라인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있음을 다수 연구가 밝혔으며, 조현병, PTSD,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들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도 하였다(박지훈 외, 2020; Andrews et al., 2010). 또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서비스 기능의 변경 및 추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확장성(scalability)을 토대로 근거 기반의 연구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Torous et al., 2020).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이용자가 늘 소지하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면 이용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시계열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 나아가 데이터를 토대로 전조 증상을 파악하여 심리적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Batra et al., 2017).

대면 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혹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하다(전진아 외, 2019). 그러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거부감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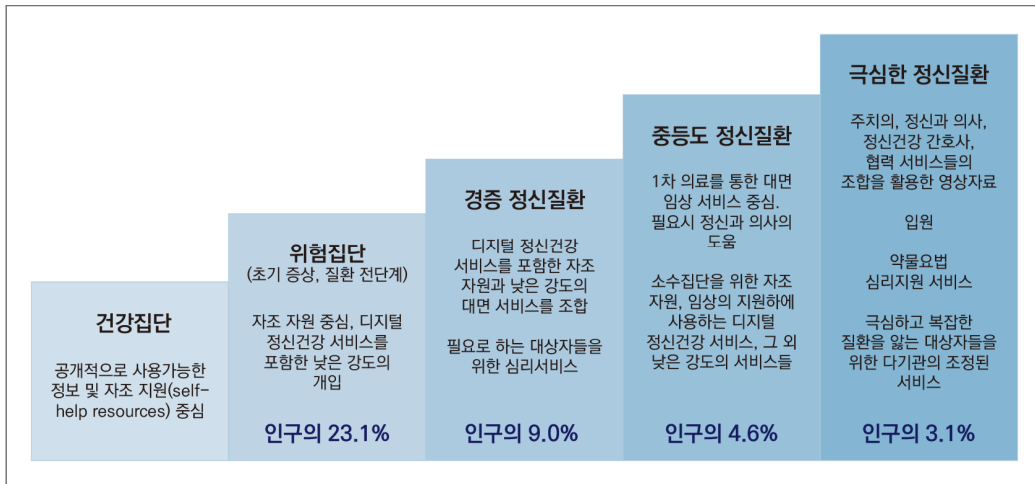
### 3. 호주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

#### 가. 추진 전략 및 계획

2012년 호주 정부<sup>1)</sup>는 디지털 정신건강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E-정신건강 전략(E-Mental Health Strategy for Australia)을 수립하였다. 이전에도 호주 정부는 소수의 온라인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전화위기 상담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통합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12). 전략은 크게 ①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② 디지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③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 홍보라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접근성 및 서비스 향상 전략의 핵심은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용이하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더 많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는 정신건강 의료진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다루기 위한 훈련과 품질 보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성할 디지털 환경을 홍보하는 전략이 포함되었다.

2017년 국가정신건강위원회(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가 발표한 제5차 국가 정신건강 및

그림 1. 정신건강 단계별 치료 수준별 욕구 및 서비스



자료: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2017). *The Fifth 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lan*, p. 20.

1) 여기에서 호주 정부(Australian Government)란 호주 연방정부를 의미한다.

자살예방 계획(2017~2022년)(The Fifth 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lan)에서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중요한 정책 도구로 다루고 있다. 정신건강 욕구 수준에 따른 개입 방안을 다루는 단계별 치료 모형(Stepped care model)에서 위험집단(At risk group), 경증 정신질환(Mild mental illness)에 개입할 때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활용하고, 중등도 정신질환(Moderate mental illness)에 개입할 때는 의료진의 보조에 따라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나. 품질 표준

2020년 호주의 보건·의료 안전 및 품질 위원회(ACSQHC: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는 디지털 정신건강에 관한 국가 안전 및 품질 표준(NSQDMH Standards: National Safety and Quality Digital Mental Health Standard)을 발표하였다.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NSQDMH 표준은 ① 임상 및 기술 거버넌스 표준(Clinical and Technical Governance Standard), ② 소비자와의 협력 표준(Partnering with Consumers Standard), ③ 치료 모델 표준(Model of Care Standard)으로 구성된다(ACSQHC, 2020). 임상 및 기술 거버넌스 표준은 서비스 이용자 및 조력자들이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상 및 기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소비자와의 협력 표준은 서비스 이용자와 조력자들이 서비스의 기획, 디자인, 전달, 측정, 평가 전반에 참여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한다. 치료 모델 표준은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각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별로 명확한 치료 모델을 세우고 이용자 및 조력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표 1.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국가 안전 및 품질 표준(NSQDMH Standards)

표준	기준	항목	
임상 및 기술 거버넌스 표준 (Clinical and Technical Governance Standard)	거버넌스, 리더십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버넌스, 리더십 및 문화</li> <li>조직 리더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 및 기술 리더십</li> </ul>
	안전 및 품질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법, 규제, 정책 및 절차</li> <li>측정 및 품질 향상</li> <li>위기 관리</li> <li>사고 관리 체계 및 의료 실수 정보 공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드백 및 항의 관리</li> <li>다양성 및 고위험집단</li> <li>보건 의료 기록</li> </ul>
	인력 자격 및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 및 품질 훈련</li> <li>성과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격을 갖춘 인력</li> <li>안전 및 품질, 역할 및 책임</li> </ul>
	치료(care) 전달을 위한 안전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환경</li> <li>사생활 보호</li> <li>투명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 및 광고</li> <li>보안 및 안전성</li> <li>지속성 및 업데이트</li> </ul>
소비자와의 협력 표준 (Partnering with Consumers Standard)	서비스 이용자와의 협력 (자가 치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 의료 권리 및 사전 동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 계획</li> </ul>
	건강 및 디지털 문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li> </ul>	
	서비스 이용자와의 협력 (서비스 설계 및 거버넌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버넌스, 계획, 설계, 측정 및 평가</li> <li>이용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근성</li> </ul>
치료 모델 표준 (Model of Care Standard)	치료 모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이용자 및 지원자를 위한 정보</li> <li>치료 모델의 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 모델 설계</li> </ul>
	치료 모델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 모델 전달</li> </ul>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 차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을 위한 계획</li> </ul>
	안전을 위한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바른 신원 확인</li> <li>중요 정보에 관한 의사소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 이전</li> </ul>
	급격한 상태 악화 인식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격한 상태 악화 인지</li> <li>치료 수준 격상 (응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격한 상태 악화 대응</li> </ul>

자료: ACSQHC(2020)를 재구성.

### 다. 정부 지출 및 의료보험

2018~19년 호주 정부의 정신건강 서비스 지출은 약 100억 호주달러로 정부 보건 의료 총 지출의 약 7.48%에 해당한다. 이 중 64%를 주정부가, 36%를 연방정부가 부담하였다 (AIHW, 2021). 정신건강 서비스 지출 중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을 정확 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PwC, 2020). 그러나 크게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 민간 기관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현재 메디케어 급여로 인정되는 서비스는 주로 정신의학적 치료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들로, 원격 정신과 진료(Telepsychiatry), 정신건강 및 웰빙 원격의료 지원(Mental Health and Well-being Telehealth Support), 섭식장애 원격의료(Eating Disorders Telehealth), 원격 심리치료 서비스(Telehealth Psychological Therapy Services), 환자측 원격의료 지원 서비스(Patient-end Support Services)<sup>2)</sup>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별로 제공 시간 등 조건에 따라 수가 및 본인 부담 비율 등이 달라진다.

민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경우 2020년 8월 기준 29개의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호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wC, 2020). 해당 기관들은 정보 제공 및 예방부터 위기 개입, 치료, 회복 및 동료 지원(peer support)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 집단	대상 집단 (상세)	기관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성인	우울/불안	Access Macquarie	MindSpot	치료 및 e-테라피(임상의 지원)
성인	우울/불안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hub services 1. MoodGym 2. E-Couch 3. Bluepages	치료 및 e-테라피(자기주도적)
성인	우울/불안	beyondblue Support Service	betondblue Support Service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교육(정보 및 서비스 접근 지점 제공)
청소년	우울	Black Dog Institute	1.myCompass 2.BITE BACK	치료 및 e-테라피(자기주도적)
전 국민	성소수자/원주민	Black Rainbow	Black Rainbow website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교육(정보 및 서비스 접근 지점 제공)
아동	트라우마	Blue Knot	Blue Knot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전 국민	식이장애	Butterfly Foundation	EDHope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청소년	암	CanTeen - online platform for young people living with cancer	Canteen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2) 화상 진료(video consultation)를 받는 환자가 있는 장소에서 또 다른 의료 전문가가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신건강에만 해당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표 2. 계속

대상 집단	대상 집단 (상세)	기관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전 국민	의료 종사자 및 학생	Doctors Health Services Pty Ltd.	Doctors Health Services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청소년	전체	eheadspace	eheadspace	치료 및 e-테라피(임상의 지원/상담자)
전 국민	전체	Griefline Community and Family Services Inc.	Griefline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전 국민	청소년, 퇴역군인, 성인 및 자살고위험군	Innowell Pty Ltd.	Synergy	정신건강 서비스용 IT 시스템
전 국민	성소수자	LGBTI Health Alliance	Qlife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성인	전체	Lifeline	13 11 14 Crisis Service	위기 개입 및 자살예방(상담)
전 국민	전체	Lifeline	Hotspots	자살 명소(Hotspots)에서의 전화서비스 및 표지판 설치를 늘리고 진료 의뢰 경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전 국민	자살	Lifeline	Lifeline Text	시범운영
전 국민	자살	On the Line	All Hours Support Service	PHN(Primary Health Networks) 이용가능한 제휴 의료제공 기관이 없을 경우 고객을 지원하는 자살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
전 국민	PHN <sup>3)</sup> 에 의해 의뢰된 고객	On the Line	National Suicide Call Back Service	위기 개입 및 자살예방(상담)
전 국민	여성 및 가족	Perinatal Anxiety & Depression Australia (PANDA)	PANDA	회복 및 상호 지지(동료 지원)
전 국민	여성 및 가족	Parent-Infant Research Institute (PIRI)	MumSpace	회복 및 상호 지지
전 국민	의료 종사자	Queensland University Technology - e-Mental Health in Practice	eMHPrac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교육 (정보 및 훈련 제공)

3) PHN(Primary Health Networks)은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독립 기관으로, 지역 내 의료 인력 지원, 의료서비스 간 연계·협력 증진, 지역 내 건강 욕구 조사 등을 담당한다(Healthdirect, 2020).



표 2. 계속

대상 집단	대상 집단 (상세)	기관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청소년	전체	ReachOut Australia	ReachOut.com	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교육 (정보 및 훈련 제공)
전 국민	유가족/ 사별자	Red Nose	Red Nose	회복 및 상호 지지(동료 지원)
전 국민	유가족/ 사별자	Stillbirth and Neonatal Death Support (SANDS)	SANDS	회복 및 상호 지지(동료 지원)
성인	전체	SANE Australia	Carers and Lived Experience Forums	회복 및 상호 지지(동료 지원)
성인	우울/불안	St Vincent's Hospital	THISWAY UP	치료 및 e-테라피(임상의 지원)
성인	전체	Swinburne University	Mental Health Online	치료 및 e-테라피(임상의 지원)
전 국민	농어촌 및 오지	Virtual Psychologist Pty Ltd.	Virtual Psychologist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청소년	전체	YourTown	Kids Helpline	예방 및 조기 개입(상담)

자료: PwC. (2020). *Scoping and development of a National Digital Mental Health Framework: Current State Assessment Report*.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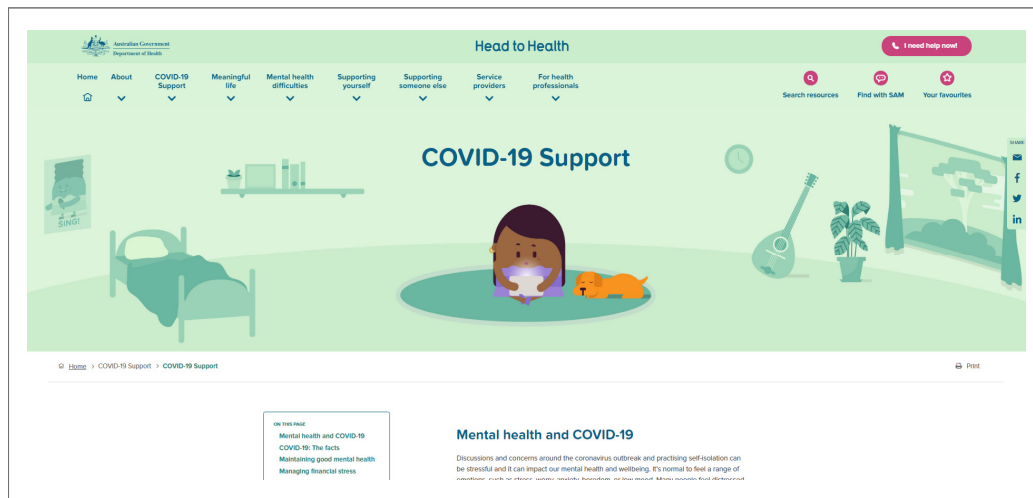
## 라. 디지털 정신건강 포털사이트 'Head to Health'<sup>4)</sup>

'Head to Health'는 호주 보건부가 2017년 개설하여 운영 중인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포털로,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들로 연결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서비스이다. 다양한 집단-연령, 성별, 인종, 직업 등-에 맞춤형된 정신건강 콘텐츠와 관련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돌봄제공자(carer), 서비스 기관을 위한 정보와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한다.

2021년 2월 현재 호주 내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635개의 디지털 정신건강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다. 리소스에는 전화·채팅·이메일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포럼, 정신건강 웹사이트 등이 포함된다(Head to Health, 2020).

4) 어유경, 이주민(2020)의 '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제5장 내용을 일부 발췌했다.

그림 2.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Head to Health’



자료: Head to Health. (2020). COVID-19 Support. Retrieved from <https://headtohealth.gov.au/covid-19-support/covid-19-support>(2021. 2. 8.)

#### 4. 나가며

호주에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이 일찍부터 추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향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컸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핵심은 디지털이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이다.

한국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의 문제들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명의 거의 두 배였다(OECD, 2021). 정신건강 질환자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높은 편견, 예방 및 조기 개입 대신 중증질환자 치료에 중점을 둔 체계 등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도 고착화되어 있다(전진아 외, 2019).

한국 정부가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충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91.8%, 스마트폰 보유율은 92.2%에 달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활용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울, 불안 등 경증 정신질환 부문에서는 효과성을 입증받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가 다수 있으므로 경

증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예방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박지훈, 송승재, 배민철. (2020). 디지털치료제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KEIT PD Issue Report, 20(3), 75-91.
- 어유경, 이주민. (2020). 돌봄종사자를 위한 비대면 권익보호 서비스 활용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진아, 전민경, 김남희, 박재현, 이용주, 윤시문, 유혜영, 김보은. (2019). 수요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 전략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 Andrews, G., Cuijpers, P., Craske, M. G., McEvoy, P., & Titov, N. (2010). Computer therapy for the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is effective, acceptable and practical health care: a meta-analysis. *PLoS one*, 5(10), e13196.
- Anthes, E. (2016). [News feature] Mental health: there's an app for that. *Nature*, 532(7597), 20-23.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2020). The use of mental health services, psychological distress, loneliness, suicide, ambulance attendances and COVID-19. Retrieved from <https://www.aihw.gov.au/suicide-self-harm-monitoring/data/covid-19/> Accessed March 17, 2021.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AIHW). (2021). Mental health services in Australia)Expenditure on mental health-related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aihw.gov.au/reports/mental-health-services/mental-health-services-in-australia/report-contents/expenditure-on-mental-health-related-services/> Accessed February 8 2021.
- Australian Commission on Safety and Quality in Health Care(ACSQHC). (2020). *National Safety and Quality Digital Mental Health Standards*. Sydney: ACSQHC.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12). E-Mental Health Strategy for Australia. Retrieved from <https://www1.health.gov.au/internet/main/publishing.nsf/Content/mental-pubs-e-emstrat/> Accessed February 10, 2021.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0a). Fact Sheet Coronavirus National Health Plan - Primary Care Package - MBS Telehealth Services and Increased Practice Incentive Payments Services. Retrieved from <https://www.health.gov.au/resources/publications/covid-19-national-health-plan-primary-care-package-mbs-telehealth-services-and-increased-practice-incentive-payments/> Accessed February 10, 2021.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2020b). MBS changes factsheet - COVID-19 Temporary MBS Telehealth Services. Retrieved from <http://www.mbsonline.gov.au/internet/mbsonline/publishing.nsf/Content/Factsheet-TempBB/> Accessed March 18, 2021.
- Batra, S., Baker, R. A., Wang, T., Forma, F., DiBiasi, F., & Peters-Strickland, T. (2017). Digital health technology for use in patient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Medical Devices: Evidence and Research*, 10, 237-251.
- Head to Health. (2020). COVID-19 Support. Retrieved from <https://headtohealth.gov.au/covid-19-support/covid-19-support/> Accessed February 15, 2021.
- Healthdirect. (2020). Primary health networks (PHNs). Retrieved from <https://www.healthdirect.gov.au/primary-health-networks-phns/> Accessed February 15, 2021.
- Marshall, J. M., Dunstan, D. A., & Bartik, W. (2020). The role of digital mental health resources to treat trauma symptoms in Australia during COVID-19.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S1), S269-S271.
-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2017). *The Fifth National Mental Health and Suicide Prevention Plan*. Retrieved from <https://www.mentalhealthcommission.gov.au/monitoring-and-reporting/fifth-plan/> Accessed February 10, 2021.
- OECD. (2021). Suicide rates (indicator).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doi: 10.1787/a82f3459-en/ Accessed February 15, 2021.
- PwC. (2020). *Scoping and development of a National Digital Mental Health Framework: Current State Assessment Report*. pwc.
- Torous, J., Jan Myrick, K., Rouseo-Ricupero, N., & Firth, J. (2020). Digital Mental Health and COVID-19: Using Technology Today to Accelerate the Curve on Access and Quality Tomorrow. *JMIR mental health*, 7(3), e18848. doi:10.2196/18848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9). The WHO Special Initiative for Mental Health (2019-2023): Universal Health Coverage for Mental Health. Retrieved from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310981/> Accessed February 8, 2021.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20). COVID-19 disrupting mental health services in most countries, WHO survey.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news/item/05-10-2020-covid-19-disrupting-mental-health-services-in-most-countries-who-survey/> Accessed February 10, 2021.